

[삼성전자] 갤럭시 새광고 Be Brave, Please



지난해 하우 투 리브 스마트(How to live SMART) 캠페인을 선보였던 삼성전자 갤럭시가 올해는 '용감해져라(Be Brave, Please)'는 새로운 메시지로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선제공격을 하라, 모험을 하라, 지질러라, 휴가를 가라, 전력 질주를 하라, 헤어져라, 지구를 지켜라, 울어라, 사고뭉치가 돼라, 퇴근시간에 퇴근하라,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용감해져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Be Brave, Please'라는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서식품]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KANU) 2차 광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의 새광고 배경은 사무실이다. 직장 여성의 일상을 배경으로 한 이번 광고는 '카누와 함께라면 사무실도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카페로 변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빛나는 햇살과 감성적인 배경음악, 그리고 바리스타 공유의 어울림으로 카누만 있으면 어디서든 카페에 앉아있는 듯 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LG전자] LG 시네마 3D 스마트TV 신제품 발표회 개최



LG전자는 올해 세계 3DTV 시장 점유율 25%로 1위에 오른다는 목표로, 예년보다 빠른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3DTV 국내 1위 수성, 세계 1위 도전이라는 모토를 내걸었다. 지난 1월 19일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열린 LG 시네마 3D 스마트TV 신제품 발표회에서 LG전자는 '올해 국내 출시 신제품 가운데 80%를 3D TV로 내놓을 것이며, 보급형에서 프리미엄 제품까지 선보여 3D는 기본, 스마트는 대세'라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한 소녀시대는 '지금은 3D시대!'라는 인사로 LG전자 TV광고모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소녀시대는 배우 원빈과 함께 LG전자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녀시대와 LG 시네마 3D TV의 이미지를 연계하여 3D TV 대중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미러팝 카메라 새광고



삼성카메라 미러팝 광고가 모델 한효주, 이계훈을 주연으로 한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첫편인 '0도 만남'에 이어 졸업식장을 배경으로 한 '45도 오해'편, '90도 다름', '135도 이해', '180도 사랑'편은 낭만적 러브스토리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한편, '180도 셀프카메라'라는 미러팝의 특징을 광고에서도 잘 녹여내고 있다.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서 폴스토리 감상과 함께 OST, 메이킹필름 등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러팝 핑크 출시를 기념해 오는 3월 30일까지 제품 구매 고객에게 러브캐트 파우치와 정품 배터리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KT] LTE 광고 WARP



영화 스타워즈의 캐릭터 다스베이더를 등장시킨 KT의 LTE 광고 워프(WARP)가 화제이다. 워프'는 휘다' 혹은 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SF영화에서 우주 공간의 시공간을 왜곡시켜 우주선을 목표지점까지 순식간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이다. KT는 다스베이더 캐릭터와 다소 생소한 용어인 워프'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또한 화장실, 지하철에서의 코믹한 상황을 활용해 광고인지도를 확실히 높였다. KT 관계자는 "워프'는 막힘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LTE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지하철 역사 옥외광고 눈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의 지하철 역사 옥외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는 유리대신 대규모 투명 액정표시장치(LCD)를 활용한 쇼윈도 안에 갤럭시 노트를 넣고, 제품과 함께 고화질(HD)급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교대, 신사, 압구정역 등 지하철 3개 역사에 설치된 광고를 본 시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의 혁신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신기술 광고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LG U+] 초고속인터넷 19요금제 새광고



LG유플러스의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19요금제 신규 광고가 배우 장혁을 모델로 기용, 무림의 결투 장면을 코믹하게 그려내 재미를 주고 있다. 이번 광고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요금이라는 19요금제의 특징을 속도감 넘치는 김술 액션을 통해 표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9요금제는 100메가급 초고속 인터넷을 기존 요금대비 24% 저렴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요금제이다. 이번 광고는 화려한 액션이 장혁의 상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반전코드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현대자동차] 인천공항의 i30 이색 옥외광고



현대자동차가 작년말 인천공항에 설치한 이색 옥외광고가 주목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인천공항 수화물 수취소 컨베이어 벨트 상단에 i30 모형을 설치하고 트렁크에서 짐이 나오는 듯한 장면을 연출해 i30의 우수한 공간 활용성과 실용성을 적극 홍보했다. 차별화된 아이디어의 이번 옥외광고는 내외국인의 관심을 끌며 i30의 주목도를 크게 높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플렉스 스티어, 히든 후방 카메라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프리미엄 해치백 i30를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번 옥외광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